

황윤석(黃胤錫)의

엄연석\*\*

## 『이수신편』(理數新編)에 나타난 이수역학의 문화다원론적 독해\*

**초록** 본 논문은 조선후기 서양 자연과학을 적극 수용하면서도 전통 성리학의 세계관을 유지했던 이재(頤齋) 황윤석(黃胤錫)의 『이수신편』(理數新編)에 반영된 이수역학의 특징을 문화다원론적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서양 자연과학과 천문역법을 받아들이면서도 성리학적 세계관을 함께 유지했던 그가 전통 유학의 도덕적 실천론과 서양과학의 자연학과 실용학을 융합한 양상을 살펴보았다.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자연학과 도덕학을 담고 있는 『성리대전』을 수정 재편집한 황윤석의 『이수신편』은 서양 자연과학을 조선에 수용한 시대적 요청의 결과였고, 그의 학문적 방향을 결정지은 저술이었다. 그는 형이상의 본체와 형이하의 작용을 하나의 전체로 연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이것은 보편적 원리를 특수한 현상세계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찾고자 하는 것으로 현상 세계의 다원적 양상을 포용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그는 오행과 팔괘를 연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자연의 생성변화를 매개로 오행(五行)과 팔괘(八卦)로부터 이루어지는 이수(理數)의 다양한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황윤석은 세계 여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이 지니는 상대적 다양성을 강조함으로써 문화다원론적 지향을 보여 주었다. 그의 이수역학은 기본적으로 전통 유학과 성리학의 도덕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자연학적 기초로서 자연세계에 대한 경험 과학적 법칙에 대한 인식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이수역학은 도덕적 정치적 이상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경험적이고 실용적인 수단을 탐구하는 의미를 가진다. 요컨대, 『이수신편』의 편찬을 통한 황윤석의 학문적 지향은 전통 유학 및 성리학의 도덕적 세계관과 근대의 실용학과 자연학을 병행 또는 연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일관된 체계를 구성하고자 한 점에 특징을 지닌다. 『이수신편』의 체계는 전통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자연학과 도덕학, 『주역』의 이수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8103756).

\*\*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교수

역학에 기초하여 서양과학과 문물, 동아시아의 문화 등 특수하고 다양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다는 점에서 문화다원론적 함의를 지닌다.

주제어 황윤석, 이수신편, 성리대전, 이수역학, 과학, 문화다원론

## 1. 머리말

본 논문은 조선후기 서양 자연과학을 적극 수용하면서도 전통 성리학의 세계관을 유지했던 이재(頤齋)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의 『이수신편』(理藪新編)<sup>1</sup>에 반영된 이수역학의 특징을 문화다원론적 관점<sup>2</sup>에서 조명하고자

1 황윤석의 『이수신편』(理藪新編)은 조선 후기 역학의 이수(理數)와 수리(數理), 상수(象數) 역학적 요소를 모두 담고 있다고 하여 이수(理數)가 모여 있는 새로운 저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藪)가 덩굴이 무성하게 우거진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수’(理藪)는 수리(數理), 이수(理數), 상수(象數)를 모두 내포하는 포괄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역학적 의미로서 이수와 수리, 상수의 의미를 규정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먼저 ‘이수’(理數)는 사물의 자연적 성질이나 법칙으로서 이치, 도리, 이법과 같이 필연적 법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반면 ‘수리’는 이러한 자연적 성질이나 법칙이 주로 수적(數的) 원리에 따라 연역되고 구성되는 측면을 규정하는 개념이다. 또 상수는 수적 원리가 특정한 사물의 상징적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과 관련하여 규정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들 개념은 상호 간에 긴밀한 연속성을 가지는 개념이며, 황윤석의 『이수신편』이 이들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속의 역학사상을 이수역학(理數易學), 수리역학(數理易學), 상수역학(象數易學)이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모두 통한다.

2 문화다원론은 기본적으로 중심문화와 주변문화가 상대적으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들 각각의 문화에 내포되어 있는 고유성과 다양성을 인정한다. 이것은 모든 문화는 아무런 수직적 위계를 가지지 않으며 수평적 평등적 차원에서 특수성과 고유성 자체를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문화다원론자들은 세계 어느 지역 어떤 계층이나 민족이든 고유의 문화가 나름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상대성, 수평적 고유성을 지향하는 이론적 관점을 문화다원론적 관점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문화다원론적 관점은 정치적 문화적 지리적 차이를 넘어서 다양성과 특수성을 포용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세계에 적용할 수 있다. 유학의 인의예악(仁義禮樂)에 내포되어 있는 문화다원론적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

한다. 또한 서양 자연과학과 천문학을 받아들이면서도 성리학적 세계관을 유지했던 황윤석이 전통 유학 및 성리학과 서양과학을 융합한 양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황윤석이 이수역학적 관점을 견지하면서도 성리학의 의리를 철학적 기초로 유지하는 만큼 의리역학적 요소를 함께 탐색하는 것이기도 하다.

황윤석의 학문은 천문(天文), 율려(律呂), 성음(聲音), 수리(數理), 역산(曆算), 서학(西學), 실학(實學)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는 『이재유고』(頤齋遺稿) [「자모변」(字母辨), 「화음방언자의해」(華音方言字義解)], 『이재속고』(頤齋續稿), 『이수신편』, 『자지록』(資知錄) 등을 지었다. 이러한 저술을 통하여 그는 조선 후기 실학의 학풍을 계승하여 자연과학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주역』을 비롯한 전통 유학의 경서(經書)를 연구하였다. 특히 그는 중국을 거쳐서 전래된 서구의 근대 과학지식을 받아들여 소개한 공적이 두드러진다. 또한 박문약례(博文約禮)를 통하여 종래의 전통 성리학과 서구의 새로운 경험론적 지식을 융합하고자 한 점이 특색을 이루고 있다.

황윤석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전통사상과 서양의 자연과학을 융합하는 구상을 하게 된 계기를 이해할 수 있다. 소현세자가 아담 살과 교류하면서 천구의(天球儀)와 같은 자연과학 기구와 시헌력(時憲曆)을 조선에 들여 온 것은 그가 살았던 시대로부터 100여년 이전부터 서양의 문물이 조선에 전래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분명한 증거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김석문은 서양 신부 자크 로(羅雅谷, Jacques Rho)의 『오위역지』

---

과 같이 언급할 수 있다. 문화다원론적 관점은 하나의 보편적 원리와 연결된 측면 보다, 하나의 보편적인 예(禮)를 다양한 문화 지역과 시대에 따라 중심을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고 수평적 평등적 차원에서 각각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의에 맞게 적용하는 태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가적 예(禮)가 유가철학의 보편적 도덕원리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예(禮) 속에는 외형적인 수직적 질서와 별개로 지역마다의 고유한 특수성과 다양성을 포용하는 차원에서 평등적 조화를 이상으로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점에서 유학의 예(禮)는 기본적으로 문화다원론적 이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五緯曆指)에 소개된 티코 브라헤의 천체관에 영향을 받아 독자적인 지전설을 구성하고 지구구형설을 수용하여 서양 과학이론을 반영한 『역학도해』(易學圖解)를 제작하였다. 이후 홍대용의 『혼천의』(渾天儀) 제작과 『의산문답』(巖山問答) 저술을 통한 서양 자연과학의 전파와 유행의 흐름이 이어졌다. 근대 서양의 자연과학과 관측기구 등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황윤석은 이들 서양과학을 자신의 학문적 체계에 유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시대적 요청임을 직감했을 것이다. 실학적 학풍이 형성되는 시기와 병행하여 서양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이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서양 자연과학이 조선후기에 차지했던 위상은 천문역법과 정치 제도적 개혁을 등에서 전통 사회에 새로운 기풍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진적 학문으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진 유학과 성리학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 유학적인 토대에 유의하고 이수(理數)를 중심으로 하는 역학사상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나서, 천문역산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자연과학이 황윤석에 있어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황윤석은 조선 후기 호락논쟁 중에 낙론을 계승하고 있는 만큼, 낙학 계열의 홍대용의 철학 사상과 연관성을 가진다. 또한 성호학과 역학 사상, 석천 신작(申緯, 1760~1828),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역학과 구별되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황윤석의 학문 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전통 유학과 서양 자연과학을 아우르는 융합적 관점을 검토하고 나아가 그의 이수역학이 지니는 문화다원론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sup>3</sup>

황윤석의 학문에 관한 선행 연구는 『이재유고』와 『이수신편』을 중심으

3 본 논문은 제1장에서 제5장까지 논의한 내용 중 2장은 『이수신편』이 지니는 이수역학적 내용과 형식의 다양성이 문화다원론적 함축과 지향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고, 3~4장은 황윤석의 이수역학적 개념, 이론 및 원리 속에 문화다원론적 의미가 미시적 차원에서 내포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제5장은 이러한 역철학적 이수적 원리가 시공간적 다양성을 지니는 사회문화적 현실에 적용되는 양상을 통하여 문화다원론적 의미를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 것으로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로 전통 성리학, 음운학, 천문학, 실학, 음악학, 자연학, 서양 자연과학 수용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가와하라 히데키[川原秀城](2020)는 『이수신편』이 『성리대전』(性理大全)의 바탕 위에 다른 인용이나 도설을 보충함으로써 『성리대전』을 확장 증보한 것이었기에 이수적·술수적 성격이 강한 저술이라<sup>4</sup>고 보았다. 구만옥은 『이수신편』이 ‘태극(太極)과 이기(理氣)에 대한 학설’, 『홍범황극내편』(洪範皇極內篇)·『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역학계몽』(易學啓蒙) 등에 수록되어 있는 상수(象數)나 율려(律呂)와 관련한 학문, 그리고 천문역산학(天文曆算學)의 세부적 방법 등을 ‘옛사람들의 지극히 훌륭한 이론’[古人之至論]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책이라<sup>5</sup>고 보았다.

다음 황윤석의 천문학에 관한 연구 성과로는 구만옥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황윤석의 『상위지요』(象緯指要)는 조선후기에는 서양 천문학의 도입으로 전통적 재이설에 균열이 발생하던 시기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전통적 점성술을 재정립하고, ‘천리’(天理)를 중시하는 유교 정치 사상을 천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편찬되었다<sup>6</sup>고 하였다. 또한 그는 황윤석의 천문역산학에 대한 관심은 전통적인 ‘율력지학’, ‘율력산수지학’의 범주 안에 놓여 있었다. 그는 ‘율력지학’이 유자의 심신상 공부에 긴요한 것은 아니지만 ‘천지간의 대문자’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보았고, ‘율

4 川原秀城, 「황윤석(黃胤錫)과 『이수신편』(理數新編)」, 『한국실학연구』 40, 2020, p. 406.

5 구만옥, 「『이수신편』(理數新編)의 편찬과 내용 구성」, 『韓國思想史學』 69, 2021, 223쪽. 구만옥은 “황윤석이 『이수신편』에서 자신의 주장도 때로 피력하고, 조선 학자들의 여러 도설(圖說)과 저술도 다수 인용한다거나, 서학서(西學書)의 활용이 적은 점 등으로 『이수신편』의 편찬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는 등 『이수신편』의 특성을 제시하였다.”라고 하였다.

6 구만옥(2015), 「황윤석(黃胤錫)의 ‘천문’(天文) 인식과 『상위지요』(象緯指要)」, 『韓國思想史學』 51, 2015. 구만옥은 김석문(金錫文)과 『역학도해』(易學圖解)의 발굴과 관련한 논문에서 『이재난고』를 기본 자료로 삼아 황윤석이 『역학도해』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김석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경로, 그리고 『역학도해』의 내용 가운데 황윤석의 관심을 끌었던 주제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구만옥(2017), 「18세기 후반 김석문(金錫文)과 『역학도해』(易學圖解)의 발굴: 황윤석(黃胤錫)의 『이재난고』(頤齋亂藁)를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57].

력산수지학'은 역법(易範)과 표리를 이루고 천지를 경위하는 것으로 일찍이 선현들도 폐기하지 않은 것이라<sup>7</sup>고 하였다.

황윤석의 자연관에 관한 연구는 천인관계론을 중심 주제로 삼았다. 박명희는 황윤석이 유기체적 자연관을 시적으로 전개함에 있어서 천문(天文) 현상과 인사(人事)를 연계하는가 하면, 자연 재이(災異)를 인간과 사회를 연결지어 인식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sup>8</sup>고 보았다. 김문용 또한 “황윤석은 천문 현상에 대한 이해에서 사실중심적 접근법과 가치중심적 접근법을 병행하였다. 서양 천문학은 그로 하여금 사실중심적 접근법의 측면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도록 해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치중심적 접근법을 통해 일·월식을 비롯한 천문의 변이(變異)에 대해 재이론적(災異論的) 관점을 유지할 수 있었다.”<sup>9</sup>라고 하였다. 이들 황윤석의 자연관에 관한 연구는 황윤석이 자연을 가치중립적인 객관적 대상으로가 아니라 인문적 가치를 투영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황윤석은 천문학을 중심으로 한 서양 자연과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서도 서학으로 일컬어지는 천주학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천기철은 황윤석이 서학 중에서도 서양과학을 공부하여 재향사족으로서의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 아울러 당시 역법 분야에 인재를 필요로 했던 국가적 요구에 응하려고 했다. 하지만 황윤석의 서학 인식에 대한 중요한 특징으로 서양의 과학은 수용한 반면, 종교는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sup>10</sup>고 하였다. 하성래는 황윤석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수용한 연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는 “1644년 신법역인(新法曆引)이 한홍일

7 구만옥(2009), 「조선후기 천문역산학의 주요 쟁점: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의 『이제 난고』(頤齋亂藁)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31(1).

8 박명희(2007), 「이제 황윤석(黃胤錫)의 시에 나타난 유기체적(有機體的) 자연관」, 『東方漢文學』 33.

9 김문용(2013), 「18세기 주자학적 천인관계론의 향방: 頤齋 黃胤錫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39, p. 54.

10 천기철(2008), 「이제 황윤석의 서학 인식과 특징」, 『동양한문연구』 27, p. 102.

(韓興一)에 의해 수입되어 이민철(李敏哲) 송이영(宋以穎)이 「혼천의」를 제작할 때 이미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설, 지구자전과 공전설이 적용되었으며, 그 뒤 김석문의 『역학이십사도해』(易學二十四圖解)에서 이론화되었으며, 담헌과 이재의 지동지원설도 여기에 진원하였다”<sup>11</sup>고 하였다.

황윤석의 성리학설에 관한 연구자로는 이형성, 황의동이 있다. 이형성은 황윤석이 낙하(洛學)를 계승하며 성리학을 구축했으며, 리기론에서 낙하의 거목 김창흠(金昌翕)의 성리설을 수용하면서 리의 본연적 동일성을 추구하였다고 보았다. 특히 황윤석의 격물치지관은 도덕적 당위성으로 윤리도 내포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학문에서 우리의 실생활에 유용한 것을 추구하려는 박학(博學)을 위한 것이었다<sup>12</sup>고 주장하였다. 황의동은 황윤석의 성리학에 관한 인식이 주로 율곡학파의 이론을 계승하여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과 인물성동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황윤석의 학문적 특징은 성리학과 실학을 겸하고 있지만, 18세기 북학과 실학자들이나 정약용(丁若鏞)에 이르러 성리학과 단절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아직도 성리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주자학에 대한 존신(尊信)이 철저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sup>13</sup>고 하였다.

다음 역학사상에 관한 논문으로는 박순철의 연구가 유일하다. 그에 따르면, 황윤석은 『주역』이 상수역과 의리역 방면에서 도서역과 유가역으로 발전하였고, 주희에 의해 상수역과 의리역의 대통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이재(頤齋)는 의리역과 유가역을 바탕으로 하여 상수역을 중시하는 역학자라고 할 수 있다<sup>14</sup>고 보았다.

11 하성래(1983), 「頤齋 黃胤錫의 西洋 科學思想 受容: 湛軒 洪大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통문화연구』 1, 명지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p. 70.  
 12 이형성(2011), 「頤齋 黃胤錫의 洛學 繼承의 性理說 一攷」, 『한국사상과 문화』 60, 한국사상문화학회, p. 353.  
 13 황의동(2008), 「頤齋 黃胤錫의 學風과 性理學」, 『汎韓哲學』 48(1), 범한철학회, pp. 25-26.  
 14 박순철(2017), 「頤齋 黃胤錫의 《周易》詩 研究」, 『중국학논총』 55, pp. 63-65.

요컨대, 황윤석은 성리학을 중심으로 하는 유학 전통 가운데 율곡학과의 이기론과 심성론을 계승하고, 낙학의 인물성동론을 견지하면서 성리학의 세계관을 자신의 학문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는 천인관계를 가치론적 연결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물리적 자연세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가치중립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황윤석이 자연을 천인상감론적 관점에서 인문적 가치를 투사하여 보는 것이 전통 유학과 성리학의 토대에서 해석하는 것이라면, 자연을 객관적인 물리적 세계로 바라보는 것은 그의 천문학과 역학에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역학의 경우는 이수역학적 특성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 의리적 특성을 동시에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좀 더 논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면 다음 제2장에서는 황윤석이 『성리대전』을 학습하면서 어떤 동기에서 『이수신편』을 지었는지와 함께 그 구성 체계 및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이수신편』 「주역강령」(周易綱領)에 내포되어 있는 이수역학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이수신편』 「역학계몽」의 이수역학적 구조와 내용이 지니는 이수역학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이수신편』의 이수역학을 문화다원론적 지향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수신편』(理數新編) 저작 동기와 구성 체계내용

### 2.1. 『이수신편』의 저작 동기와 『성리대전』 연구

이 장에서는 황윤석이 『이수신편』<sup>15</sup>을 어떤 동기에서 저술하였으며, 그

15 『이수신편』의 저작연대에 관해서는 구만옥의 「『이수신편』(理數新編)의 편찬과 내용 구성」(『韓國思想史學』 69, 2021)를 참조할 것.



구성 체계상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검토함으로써 그의 이수학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황윤석은 조선 후기 주자 성리학이 심화되면서도 경험주의적 실학이 행해지던 영조(英祖) 재위 초기(1729년)에 태어나 젊은 시절부터 유학과 성리학의 학문적 토대 위에 여러 영역의 경험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힘썼다. 그는 당시의 서양과학의 경험주의적 학문에 영향을 받아 유학과 성리학의 도덕실천적인 지향과 그에 대한 본체론과 심성론적인 토대에 근거하여 경험세계를 다루는 학문 분야에 대한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성리학의 형이상학과 심성론, 천문역법과 울려, 성음, 신술 등을 포괄하는 경험과학, 그리고 정치경제론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황윤석의 학문적 관심을 충족시켜 주기에 충분한 저술이 바로 『성리대전』(性理大全)이었다.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자연학과 도덕학을 담고 있는 『성리대전』은 조선 후기 서양 자연과학의 조선 수용과 함께 천문역법과 산학, 음운학 등 새로운 시각에서 재편집될 필요가 있었다. 황윤석이 지은 『이수신편』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대응한 학문적 결실이었으며 그의 학문적 방향을 결정한 저술이었다. 다시 말하면 황윤석의 평생의 역작으로서 『이수신편』은 『성리대전』의 조선후기의 변주곡이자 수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성리대전』은 여러 영역에 대한 그의 학문적 관심 주제를 대부분 담고 있음으로써 그의 포괄적인 학문적 탐구의 여정에 핵심적인 저술이 된 것이다.

황윤석이 『성리대전』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이수신편』을 새로이 저술한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가 이를 실증해 주고 있다. 먼저 「연보」(年譜)에 따르면, 그는 영조 20년 가을 9월에 『이수신편』을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곧 “선생은 『성리대전』을 가장 깊이 공부하였고, 끝에는 그 조례에 따라 『성리대전』에 근본을 두면서 여러 책을 참고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서 거질의 책을 지었으니 평생의 노력이 모두 이 책에 있다.”<sup>16</sup>라고 하였다. 이

16 『頤齋續稿』卷14, 付祿, 年譜, 37, “英祖二十年甲子(先生十六歲), 秋九月, 始編理藪新編,

처럼 『성리대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함께 새로운 저술로서 『이수신편』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황윤석의 학문적 관심은 매우 넓은 분야를 포괄한다.

『이재난고』(頤齋亂藁) 「자서설」(自叙說)에는 황윤석이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공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나는 젊은 시절 독서를 하면서 별과 달을 관찰하여 점치며 높은 곳에 올라 원경을 관측하고 등을 밝혀 밤을 새우면서 학문에 힘썼다. 경사자집(經史子集), 심성이기(心性理氣), 성음(聲音), 전예(篆隸), 도화(圖畫), 의약(醫藥), 상수(象數)와 모든 구류백가(九流百家)에 대하여 사색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이미 머리와 눈이 어지러운 질병으로 괴로워했다.”<sup>17</sup>라고 적고 있다. 특히 그는 1744년에 『성리대전』 여러 편을 베껴가면서 심취하여 공부하여 눈병을 얻기까지 했다<sup>18</sup>는 사실을 시제목으로 언급한 기록도 보인다. 그는 『주역』과 여러 경전을 차례로 익히고 나서 『성리대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역범(易範)·성리(性理)·이기(理氣)의 근원과 율력(律曆)·산가(算家)의 이론을 섭렵했다고 적고 있다.

젊어서 오랫동안 가학(家學)으로 배워서 옛 학문에 뜻을 둘 수 있었는데, 먼저 『주역』 이하 여러 경전을 따라서 차례로 일관되게 익혔다. 이어서 한 질의 『성리대전』에 나아가 더욱 공부를 하였다. 때로는 나의 견해를 기록하고 선배들의 의견을 안배하며 은미한 말이나 깊은 뜻과 의혹이 되는 문장이나 빠진 글자에 대해서는 일일이 전주(箋註)를 붙였다. 그리고 위로 역범(易範)·성명(性命)·이기(理氣)의 근원으로부터 율력(律曆)·산가(算家)에

---

先生於性理大全功用最深，遂倣其條例，本諸大全，參以群書，附以己見，編成巨帙，平生精力盡在此書。”

17 『頤齋亂藁』卷41, 「自叙說」, “余少時讀書寫字, 候星占月, 登高望遠, 明燈達夜, 勞心費力, 其於經史子集, 心性理氣, 聲音, 篆隸, 圖畫, 醫藥象數, 一切九流百家, 無非思索之地, 已嘗苦頭目眩暈矣.”

18 『頤齋亂藁』卷1, 「詩」, 「去冬寫出性理大全數編, 因得目疴, 尙未祛根, 可悶」.

이르기까지 또한 거의 광범위하게 열람하였다. 비록 넓으면서도 정밀하지 못하면 넓지 못한 것과 같지만, 지금은 넓은 것으로 말미암아 정밀한 것을 추구하였으나, 아직 이루지 못했다.<sup>19</sup>

황윤석은 젊은 시절부터 가학을 통하여 옛 학문을 접하였는데, 『주역』을 필두로 한 유학 경전을 차례로 섭렵하고 나서, 송대 성리학을 집대성한 『성리대전』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와 선배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문장의 출입이 있는 곳을 포함하여 은미한 뜻을 해명하고자 주석을 붙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역(易)의 원리와 성명이기의 근원과 자연법칙의 세계를 다루는 율력과 산학 등의 학문을 병행하여 탐구하였다. 다시 말하면 황윤석은 『주역』과 유학 경전, 그리고 『성리대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명이기의 근원을 탐색함으로써 인간의 도덕적 실천과 그 근원을 연구함과 동시에, 객관적 자연 세계로서 천문 율력과 산술 등의 박학(博學)을 함께 궁구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박학’(博學)이 객관 세계와 그 법칙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뜻한다면, 성명이기의 근원이라는 것은 도덕적 실천과 그 근원에 대한 지식을 뜻한다. 이 맥락에서 그는 광범위하게 경험적 지식을 쌓는 박학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밀하지 못하면 널리 탐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취지를 언급하면서 널리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정밀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널리 객관적 경험 세계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을 정밀하게 정치적 또는 도덕적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뜻하며, 이것을 요약하는 말이 바로 박문약례(博文約禮)다.

이렇게 볼 때, 황윤석이 『성리대전』에 학문적 열정을 쏟은 것은 이 저

19 『頤齋亂藁』卷11, 戊子(1768年), “蓋自少, 舊學于家庭, 已得妄意學古, 而先從周易以下諸經, 次第貫熟, 因就性理大全一帙, 尤加工夫, 或記管見, 或援前輩說話, 微辭奧義, 疑文闕字, 一一各有箋註, 而上自易範性命理氣之原, 以至律曆算家, 亦庶幾汎濫矣. 雖然博而不精, 猶不博也. 今方因博求精而未有所成.”

술의 내용이 인간의 도덕적 정치적 실천을 가능케 하는 형이상학적 근원으로서 성명이기를 언급하고 동시에 박학의 대상으로서 천문 율력 산술 성음 등과 같은 박학(博學)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성리대전』에 대한 학습에 이처럼 열정적으로 심취하는 모습에서 그의 학문적 성격이 전통 유학과 성리학이 지향하는 도덕적 실천을 통한 이상적 통치론과 객관적 경험세계의 법칙에 대한 지식의 확대를 종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학문적 지향을 박문약례로 규정할 수 있으며, 자연학과 도덕학을 체와 용, 근거에 따르는 연역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연속성을 가지는 체계로 구성하고자 한 것이다. 요컨대, 박문약례는 황윤석이 전통유학 및 성리학과 서양과학을 융합하는 구체적 방법이였다. 이처럼 『성리대전』에 대한 주도면밀한 연구를 한 만큼, 황윤석은 『이수신편』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성리대전』의 내용을 많은 부분 반영하였고 장절 체제와 범례 또한 많은 유사성을 띤다.<sup>20</sup> 황윤석은 『이수신편』 「서」(序)에서 자신이 평생에 걸쳐 정력을 기울인 분야가 이수(理數)의 학문을 총괄하는 것이라는 대전제 하에 그동안 이수학의 구체적 요소들로서 태극이기의 학, 홍범경세의 학, 그리고 계몽·역법의 학을 통찰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고인의 학문에 뜻을 둔 사람으로서 이러한 학문을 하지 않으면 사람답게 되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수를 총괄하는 약간의 문제들은 내가 한 평생 동안 정력을 기울인 분야이다. 아아! 내가 어찌 이것을 즐겼겠는가? 태극이기의 학설은 천지의 만리를 총괄하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추구할 수 없었고, 홍범경세의 학문은 하도낙서의 묘리를 포괄하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통찰하지 못했다. 이

20 『이수신편』과 『성리대전』의 장절 체제를 비교한 도표는 구만옥의 「『이수신편』의 편찬 내용과 구성」(『韓國思想史學』 69, 2021, p. 240)에서 자세하고 정리해 놓았으므로 참고할 수 있다.

어 계몽과 역법은 고인들이 미래를 추측하여 아는 학문인데도 오히려 나는 우둔하고 총명하지 못하여 그것을 살피지 못했다. 이것이 세속적인 학자의 일반적인 상례이다. 하지만 옛날 학문에 뜻을 둔 사람이 있다면 어찌 재능이 없다고 하여 선을 긋고 강론하지 않겠는가? 고인들이 단서를 이룬 논의이므로 이것이 내가 이것을 즐겨하지 않으면서도 강제라도 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대개 생각건대, 이것을 강구하지 않으면 사람노릇하기에 부족할 것이다. 미치지 못하는 듯이 열심히 하여 반드시 그것을 통찰한 이후에야 나의 사업이 비로소 끝날 것이다.<sup>21</sup>

이 단락에서 황윤석은 자신의 필생의 연구 주제를 ‘이수의 학문을 총괄함’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수학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태극이기, 홍범경세, 계몽역법의 학문을 거론하면서 이들 학문에 대한 통찰이 그동안 부족하였고, 이들 학문을 억지로라도 강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태극이기의 학으로 만리(萬理)를 포괄하는 것으로 자연학과 도덕학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하도낙서」의 묘리를 포괄하는 홍범경세학으로는 도덕적 정치적 실천학을 언급하고 있다. 계몽과 역법의 학으로부터 미래를 예측하여 실천의 방향과 기준을 결정하는 실천학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sup>22</sup> 이렇게 경험적 자연학과 도덕적 실천학, 그리고 실천의 기준을 제시하는 학문을 종합적으로 통찰할 때 사람다운

21 『이수신편』(理藪新編)·서(序), “理數總若干問目, 是余一生精力之所在也. 嗟夫, 余豈樂爲此哉. 太極理氣之說, 總天地之萬理, 而余莫能求之. 洪範經世之學, 括河洛之妙機, 而余莫能透之, 以至啓蒙曆閏之法, 固古人知來之學, 而顧以余之頑頓不敏, 又莫得以竅測, 是雖俗儒之常轍, 而若或有志於古者, 則豈可以不才自畫而不講乎! 古人之緒論哉. 此余所以無樂乎此而強而爲之者也. 蓋以爲不講乎此, 則不足以爲人. 勉勉乎若不及而必欲其洞究而後, 吾事始爲終也.”

22 태극이기, 홍범경세, 계몽역법은 범주를 넓히면 각각 인문학,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을 다루는 학문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주자어류』에는 태극이기를 언급하는 곳에서 서양 천문학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 나오는 만큼, 자연과학을 태극이기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이런 학문을 이룰 때 평생의 사업을 마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볼 때 황윤석의 학문적 지향은 경험적 자연세계에 대한 박물학을 지향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도 박물학을 방법 또는 수단으로 하여 도덕적 실천학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성리대전』의 범례에 따라서 편성한 『이수신편』의 장절 구성 체계와 내용이 자연학과 도덕학을 일관된 체계로 구성하고 한 황윤석의 학문적 지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 2.2. 『이수신편』의 구성 체계와 내용상 특징

이 장에서는 『이수신편』의 구성 체계와 함께 내용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요약해 보고자 한다. 『이수신편』은 장절의 출입과 내용의 차이, 그리고 장절 순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리대전』의 편제를 대부분 수용하여 따르고 있다. 편장의 앞뒤 순서에 따른 논의의 주제를 살펴보면, 가장 서두에 태극(太極), 이기(理氣), 천도(天度) 등 형이상학 본체와 연관되는 개념들에 대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음으로는 성신, 음양오행, 지리, 「주역강령」, 『한서올력지』 등 자연의 현상적 규율에 관한 논의를 다루는 편장이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자연학에 대한 고찰을 하는 편장을 제시하고 나서 9장부터는 성리(性理), 성명(性命), 통서(通書), 서명(西銘), 정몽(正蒙) 등 심성수양론과 도덕적 실천론을 다루는 편장을 제시하였다.

그다음에는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와 『홍범황극내편』(洪範皇極內篇), 『역학계몽』(易學啟蒙) 등 보다 정치한 자연학을 다루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이어서 제16편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현실에서 도덕적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군도(君道)와 치도(治道)의 방법론을 다루는 편장이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마지막에는 음운학, 산학을 다루는 자료가 덧붙여 있는데, 이러한 저술은 『성리대전』에는 없는 것으로, 황윤석의 이수학의 특성을 드러내는

내용이다. 이러한 편제를 생각해 볼 때, 황윤석의 학문적 지향점은 유학의 도덕적 이상론을 목표로 삼으면서도 그 실질적인 실행 방법론을 구체하기 위한 여러 수리학과 역법, 운학 등을 탐구하고 이를 수단으로 유학의 이상 정치론을 이루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수신편』이 『성리대전』과 비교하여 편제상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이수신편』은 『성리대전』의 편제를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동시에 독자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먼저 『이수신편』과 『성리대전』은 편제의 형식상으로 태극과 이기 항목을 하위 범주로 두느냐 병렬시키느냐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둘째, 『이수신편』은 특히 역법(曆法), 일월의 운행, 성신(星辰) 등의 내용을 크게 보강하여 통치를 위한 실용학문으로 자연학적 토대를 확고하게 하고자 하였다. 셋째, 제6권 지리편에서 『성리대전』과 달리 조선의 고구려(高句麗), 탐라국(耽羅國)의 풍토와 민속, 왜국(倭國) 등을 언급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넷째, 제8권에는 『역학계몽』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자료로서 반고가 편찬한 「울력지」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다섯째, 제9권에서 『이수신편』은 『성리대전』에 비하여 성명(性命)론 자료가 소략하고 서경덕이 지은 자료를 수록하여 자연학적 수리역학을 강조하였다. 여섯째, 『이수신편』 「통서(通書)」와 「정몽(正蒙)」은 『성리대전』과 달리 주자의 주석을 대부분 생략하고 원문 위주로 싣고 있다. 일곱째, 「치도(治道)」, 「전부(田賦)」 항목에서는 주자와 삼산이씨(三山李氏) 등 중국학자들의 견해만 아니라, 조선 후기 이수광(李睟光)의 견해를 덧붙였다. 여덟째, 제20-23장까지 『운학본원』, 『산학입문』, 『산학본원』 등은 『성리대전』에는 없는 항목으로 황윤석의 음운학과 산학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아홉째, 『성리대전』과 달리 보다 많은 편장에서 그림이나 도표를 활용하고 있다.

요컨대, 『성리대전』의 일부 절요 또는 수정판이라 할 수 있는 『이수신편』은 기본적으로 유학의 도덕적 정치적 이상 통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황윤석은 서양 천문학과 산학 등의 수용과 같은 당시의

변화된 학문적 풍토에서 유학의 도덕학을 유지하면서도 실용학과 자연학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하는 점에 유의하여 『이수신편』을 편찬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수신편』의 편찬을 통한 황윤석의 학문적 지향은 전통 유학과 성리학의 도덕적 세계관과 근대의 실용학과 자연학을 병행 또는 연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일관된 체계를 구성하고자 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3. 『이수신편』 「주역강령」(周易綱領)의 이수역학적 특징

이 장에서는 『이수신편』 7권 「주역강령」에 내포되어 있는 수리역학적 특징을 문화다원론적 시각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주역강령」의 구성 체계는 『역학계몽』 제1장 「본도서」(本圖書)와 「원괘획」(原卦畫)장을 인용하여 이 저술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면서도 뒤에는 전혀 새로운 내용을 붙여서 황윤석이 이들 자료를 통하여 이수역학을 제시한 의도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23</sup>

황윤석은 『이수신편』에서 주희 『역학계몽』 장절 「본도서」와 「원괘획」을 제7권에 배치하면서, ‘주역강령’(周易綱領)이라 하였고, 「명시책」과 「고변점」을 제15권에 배치하여 ‘역학계몽’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황윤석은 주희 『역학계몽』의 앞의 두 장이 『주역』에서 강령이 되는 『주역』 괘효의 구성 원리를 말한 것이라면, 뒤의 두 장은 구체적 점변(占變) 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권7에서 그가 주희(朱熹), 채원정(蔡元定), 왕백(王栢) 등의 견해를 인용하였으나,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황

23 『역학계몽』은 「본도서」, 「원괘획」과 함께 「명시책」(明蓍策)과 「고변점」(考變占) 등 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황윤석은 앞의 두 편을 『이수신편』 7권에, 뒤의 두 편을 15권에 소속시켰다. 이것은 황윤석이 지향하고자 한 이수역학의 특성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이 자기 나름으로 적절하게 배치하고 편집한 것으로서 그의 해석적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이수신편』의 편찬 내용을 『성리대전』과 비교해 보면 두 저술이 지니는 편집상의 내용의 차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요컨대, 그의 해석적 태도는 본체론적 원리적 세계를 넘어서 경험적 현상세계와 그 법칙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주역강령」(周易綱領)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나서 그 이수역학적 의미와 문화다원론적 지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역강령」 7권은 『역학계몽』의 「본도서」를 앞에 싣고, 뒤에 서산채씨(西山蔡氏)의 견해, 권근도설(權近圖說)을 붙였는데, 이것은 『역학계몽』에 없는 것으로 황윤석의 이수역학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어서 「원패획」장으로 「복희팔괘차서지도」(伏羲八卦次序之圖), 「복희육십사괘방위지도」(伏羲六十四卦次序儀象遞生圖), 「복희육십사괘방위도」(伏羲六十四卦方位圖), 「문왕팔괘차서」(文王八卦次序) 등을 인용하였고, 괘변도(卦變圖)를 붙이고 이 도표에 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 총론(總論)이 붙어 있고, 「악설」(樂說)이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면 「주역강령」 속에 이수역학의 요소가 어떻게 담겨 있으며, 이것이 지니는 문화다원론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주역강령」의 이수역학은 그 구성 체제에 따라서 「본도서」, 「원패획」, 총론(總論), 그리고 편제 구성에서 드러나는 특징 등을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본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에 내포되어 있는 이수역학적 의미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본도서」에서는 「하도낙서」에 포함되어 있는 천지생성의 수로부터 이루어지는 생성론과 그 과정에서 작용하는 오행(五行)의 순환변화의 구조와 유행을 문제 삼고 있다. 「본도서」는 서두에 「하도낙서」 그림을 그려 놓고, 이어 하수(河水)에서 도

(道)가 출현하고 낙수(洛水)에서 서(書)가 출현하여 성인이 이를 본받았다<sup>24</sup>고 하는 「계사전」의 구절을 인용하여 천지생성수의 구조와 발생변화를 설명하였다. 이어 하늘의 수가 다섯, 땅의 수도 다섯으로 다섯 자리가 서로를 얻어서 각각 결합하고 있다. 천의 수가 25이고, 땅의 수가 30이 되어 모든 천지의 수는 55가 된다. 이것이 변화를 낳고 귀신을 행하는 것<sup>25</sup>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천지의 각각의 수가 현상사물 세계와 예측할 수 없는 귀신의 변화를 낳는다고 하여, 보편적인 수리적 원리로부터 변화무상한 세계가 유행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하도낙서」에 포함되어 있는 천지지수의 자리와 수가 같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에 대하여 주희는 다음과 같이 천지지수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어떤 사람이 질의하기를 「하도낙서」의 자리와 수가 같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대답하였다. “「하도」는 다섯 생수로 다섯 성수를 거느리면서 그 방위에 함께 머문다. 대개 온전한 것을 들어서 사람에게 보여 주어 그 상수(常數)의 본체를 말한다. 「낙서」는 5개 기수로 4가지 우수를 거느리면서 그 위치를 각기 달리한다. 그래서 양을 주인으로 삼아 음을 통어하면서 그 변수의 작용을 시작한다.”<sup>26</sup>

「하도」는 천지음양의 생수(生數)와 성수(成數)가 같은 자리에서 서로 합하여 있음으로써 사물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구조적 원리로서 수의 불변하는 본체를 보여 주는 것인 반면, 「낙서」는 5개의 양의 기수가 4개의 음의 우

24 『理數新編』卷7, 「周易綱領」, p. 522, “右繫辭傳曰, 河出圖, 洛出書, 聖人則之.”

25 『理數新編』卷7, 「周易綱領」, p. 522, “天數五, 地數五, 五位相得而各有合, 天數二十五, 地數三十, 凡天地之數五十有五. 此所以成變化而行鬼神也.”

26 『理數新編』卷7, 「周易綱領」, p. 526, “或曰, 河圖洛書之位與數, 所以不同何也? 曰河圖以五生數, 統五成數而同處其方. 蓋揭其全以是人, 而道其常數之體也. 洛書以五奇數, 統四偶數, 而各居其所. 蓋主於陽而統陰, 而肇其變數之用也.”

수를 각각 다른 자리에서 통어하므로 사물을 변화 생성시키기 때문에 변화하는 수의 작용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하도낙서」의 수적 원리가 현상 사물세계를 가능케 하는 형이상의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구조적 원리와 형이하의 특수하고 변화하는 유행의 형상을 함께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도낙서」의 수적 원리는 일원적 본체의 세계와 다원적 현상세계를 결합하여 구조 지우면서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주역강령」, 「본도서」에서 말하는 천지이수 사이의 상관적 의미로부터 파생하는 이수역학적 원리가 문화다원론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황윤석은 『역학계몽』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 이외에 특별히 서산채씨(西山蔡氏)와 주희(朱熹)의 주장, 권근(權近)의 도설을 끌어들이 「하도낙서」의 수리적 원리를 연역하고 있다. 이 부분 또한 황윤석의 이수역학의 특징을 드러내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 황윤석은 채원정(蔡元定)이 자연지리에 대하여 언급하는 단락을 인용하여 이수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복희가 그저 「하도」에 의거하여 역(易)을 지었을 때는 「낙서」를 미리 볼 필요는 없었지만, 거슬러 그것과 부합했다. 대우(大禹)도 그저 「낙서」에 근거하여 홍범(洪範)을 지었지만, 또한 반드시 「하도」를 소급하여 고찰할 필요는 없었으나, 암암리에 합치하였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참으로 이런 이치 이외에 다른 이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뿐만이 아니다. 율려(律呂)에는 오성십이율(五聲十二律)이 있으나, 그 서로 곱한 수( $5 \times 12$ )는 육십(六十)으로 마치고, 날짜에 대한 명명에는 십간십이지가 있으나, 그 제곱수 또한 육십에서 다한다. 두 가지는 모두 역(易) 이후에 나왔고, 그 일어나는 수 또한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역의 음양의 책수와 노소가 절로 서로 맞아떨어져서 모두 육십이 되니, 부절이 합하는 것과 같지 않음이 없다. 아래 운기(運氣), 참동(參同), 태일(太一)과 같은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서로

통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이 대개 자연의 이(理)이다.<sup>27</sup>

황윤석은 채원정의 주장을 인용하여 복희와 대우가 각각 역(易)과 홍범(洪範)을 만들 때, 「하도」(河圖)와 「낙서」(洛書) 중 하나만 참고하였지만, 그 수적 원리가 암암리에 일치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치는 오성십이율의 율려(律呂)와 역법의 간지(干支), 역의 음양의 책수와 노소가 모두 육십(六十)이란 수로 일치하는 것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리는 운기, 참동, 태일의 법칙에도 그래도 적용되며, 이것이 자연지리(自然之理)라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그가 말하는 이수(理數)는 자연 또는 인문적인 여러 현상에 동일한 수리적 원리가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다. 「하도낙서」의 수리적 원리가 육십(六十)이라는 숫자로 연역되어 다양한 사물 세계의 자연지리(自然之理)가 되는 것에서 그 다원론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sup>28</sup>

황윤석은 주희를 인용하여 태극(太極)으로부터 양의·사상·팔괘를 거쳐 육십사괘가 연역되고 이로부터 다시 파생되는 무궁한 사물의 변화세계가 음양 미분된 상태의 태극에 이미 구비되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천지 사이에 태극음양의 신묘함 아닌 것이 없으니, 성인이 우러러 살피고 굽어서 관찰하며 멀리서 찾고 가까이에서 취하니 본디 마음에 묵묵히 이해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양의가 아직 분화되기 이전의 혼연한 태극으

27 『理數新編』卷7, 「周易綱領」, p. 536, “西山蔡氏曰, …, 伏羲但據河圖以作易, 則不必預見洛書而已, 逆與之合矣. 大禹但據洛書以作範, 則亦不必追攷河圖而已, 暗與之符矣. 其所以然者, 何哉? 誠以此理之外, 無復他理故也. 然不特此耳. 律呂有五聲十二律而其相乘之數, 究於六十. 日名有十干十二支, 而其相乘之數, 亦究於六十. 二者皆出於易之後, 其起數又各不同. 然與易之陰陽策數, 老少自相配合, 皆爲六十者, 無不若合符契也. 下至運氣參同太一之屬, 雖不足道, 然亦無不相通, 蓋自然之理也.”

28 여기에서 황윤석의 설명은 물론 객관 세계의 이치를 경험적 귀납에 따라 파악하는 경험론적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반대로 그는 60이란 수를 생성시키는 보편적 원리를 연역적으로 도출하여 이것을 자연의 경험적 세계의 토대로 삼고자 하였는데, 여기에서 자연지리의 다원성은 다양한 경험세계를 설명하는 해석체계가 된다는 의미다.

로부터 양의 사상 육십사괘의 리(理)가 이미 그 속에 찬란하다. 태극이 양의로 나누어지더라도 태극은 여전히 태극이고, 양의는 여전히 양의이다. 양의가 사상으로 나뉘면 양의는 다시 태극이 되고, 사상은 다시 양의가 된다. 이것으로부터 사로 미루고 팔, 십육, 삼십이, 육십사가 되어서 백천만역의 무궁함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미 정해진 형체와 이미 이루어진 형체는 본디 이미 혼연한 가운데 구비되어 있어서 그 사이에는 미세한 사려나 인위적 작위도 용납하지 않는다.<sup>29</sup>

황윤석은 양의, 사상, 육십사괘로 분화되어 나오는 분수의 리(理)가 이미 혼연한 태극에 모두 구비되어 있으며, 반대로 이들 분화되는 양의, 사상, 육십사괘에 태극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만약 육십사괘 속에 변화의 원천인 태극(太極)이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더 이상 분화하여 무궁한 변화를 낳을 수 없다. 여기에서 태극이 음양의 무궁한 변화를 낳을 수 있는 까닭은 태극이 음양의 소장에 따라 분화를 지속할 수 있는 미리 정해지고 이루어진 형체와 형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황윤석은 또한 주희의 삼전 제자인 왕백(王栢, 1197~1274)의 이론을 인용하여 「주역강령」의 총론(總論)으로 삼아 이수역학적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는 음양의 기가 지나는 응취와 발산, 출입 등과 같은 원리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현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기가 모여서 질이 있는 것이 음이 되고, 펼쳐져서 기가 있는 것이 양이 된다. 음기가 응결하여 양이 안에 있으면서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면 부딪쳐

29 『理藪新編』 卷7, 「周易綱領」, 「伏羲六十四卦次序儀象遞生圖-先天六十四卦橫圖」, 559~560쪽, “天地之間, 莫非太極陰陽之妙, 聖人仰觀俯察, 遠求近取, 固有超然而默契於心矣. 故自兩儀未分渾然太極, 而兩儀四象六十四卦之理, 已粲然於其中. 太極分而兩儀, 則太極固太極, 兩儀固兩儀也. 兩儀分而四象, 則兩儀又爲太極, 而四象又爲兩儀矣. 自是而推四而八十六三十二六十四, 以至於有百千萬億之無窮. 然其已定之形, 已成之勢, 固已具於渾然之中, 而不容毫髮思慮作爲於其間也.”

서 우리가 되고, 양이 밖에 있으면서 들어갈 수 없으면 빙빙 돌면서 머금어서 바람이 된다. 양과 음이 서로 끼고 있으면 마찰하여 빛이 나면서 번개가 일고, 양기가 바로 상승하여 음에 편승하게 되면 서로 지탱하면서 비가 된다. 음과 양이 서로 타고 올라가는 것을 도우면 날아올라서 구름이 되고, 화기가 흩어지면 이슬과 서리 눈이 되고, 불화하여 흩어지면 어그러진 기운이 흄비나 먹구름이 된다. 음이 양에 간여하여 기가 얽어지고 해를 가릴 수 없으면 무지개가 보이고, 양이 음에 옹드려 기가 응결하여 스스로 거둘 수 없으면 우박이 내린다.<sup>30</sup>

음양의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수렴과 확산, 내외, 충돌과 마찰, 승강, 박격(搏擊), 엄복(掩伏)과 같은 작용에 따라 매우 다양한 기상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오행 가운데 수(水)와 관련한 황윤석의 이러한 이수역학적 문제에 대한 인식은 일정한 수리적 또는 이수적 원리로부터 다양한 자연 현상의 법칙이 귀결되는 것으로서 보편적 원리로부터 다원적 현상을 해명하고자 하는 점에서 다원론적 의미를 지닌다.

#### 4. 『이수신편』 「역학계몽」의 이수역학적 구조

이 장에서는 『이수신편』 15권에 실려 있는 「역학계몽」에 내포되어 있는 수리역학적 특징을 문화다원론적 시각에 유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장에서는 괘를 뽑는 방법과 점을 치는 방법으로서 『주역』 괘효사를

30 『理藪新編』卷7, 「周易綱領」, p. 594, “氣之攢斂而有質者爲陰, 舒散而有氣者爲陽. 陰氣凝聚, 陽在內者不得出, 則搏擊而爲雷, 陽在外者不得入, 則周旋不含而爲風. 陽與陰夾持, 則磨軋有光而爲電, 陽氣正昇爲陰所乘, 則相持而爲雨. 陰與陽得助其飛騰, 則飄揚而爲雲, 和氣散則爲露霜雪. 不和而散則爲戾氣霾瘴, 陰干於陽而氣薄, 不能以掩日, 則虹見, 陽伏於陰而氣結, 不能以自收則雹降.”

운용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주역상하편의」(周易上下篇義)와 「역설잡론」(易說雜論) 등에 내포되어 있는 수리적 원리와 다원론적 지향을 해명해 보고자 한다.

『이수신편』 「역학계몽」 15권의 구성 체계는 「본도서」와 「원괘획」은 상편 7권의 「주자도설」(朱子圖說)에 수록되어 있고, 「명시책(明著策)」과 「괘변도」를 포함한 「고변점」(考變占) 두 편을 이어서 그 핵심적인 부분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의(筮儀)」를 붙이고, 「주역상하편의」와 「역설잡론」을 붙여 두었고, 그 뒤에는 「옥재호씨계몽통석부도」(玉齋胡氏啟蒙通釋附圖)를 비롯한 11개의 도표를 붙이고 이들에 대한 역대 학자들의 도설을 붙였다. 이 뒤에도 「동진경주역회통설」(董真卿周易會通說), 「괘월법」(卦月法), 「팔괘납갑법」(八卦納甲法), 「팔괘소속팔문구성」(八卦所屬八門九星), 「괘체지변」(卦體支變), 「선천수」(先天數)와 「후천수」(後天數) 등이 붙어 있다.

『역학계몽』을 주로 수록한 『이수신편』 15권 중 「서의」(筮儀) 이하 주희의 『역학계몽』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들로 황윤석이 수록한 내용들로부터 그의 이수역학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면 황윤석이 기존의 주희 『역학계몽』의 내용을 수록한 것 이외에 부연하여 수록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문화다원론적 함의에 유의하면서 그의 이수역학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황윤석은 『이수신편』 15권 뒷부분에 『주역전의대전』(周易傳義大全) 속의 「주역상하편의」(周易上下篇義)를 수록하고 나서 「상하편괘차」(上下篇卦次)를 그리고 안설(按說)을 붙였다. 여기에서 그는 36궁이 이루어지는 사례를 해설하였다. 그는 상편(上篇) 30개 괘에 대하여 “건·곤·이·대·감·리 등 6개 괘밖에 24개 괘는 본래 12개 괘가 상반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국 18개 괘가 된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그는 하편 34괘에 대하여 “중부·소과 2괘 이외에 32개 괘는 본래 16개 괘가 상반되어 이루어져서 18개 괘가 된다.”<sup>31</sup>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추론하여 그는 “상하경 18개 괘는 합하여

31 『理藪新編』卷15, 「易學啟蒙」, p. 1302, “除乾坤頤大過坎離六卦外, 二十四卦本十二卦相反,

36궁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6 \times 6$ 의 수이다. 대개 소성괘는 여덟이지만 건곤감리 4개 괘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 괘는 본래 두 괘가 상반하여 이루어져서 모두 6괘가 된다. 그래서 전체 숫자는 8이나 8배하면 64이다. 본수의 여섯으로 6배를 하면 36이 된다.”<sup>32</sup>라고 하였다. 황윤석은 64괘 가운데 반대가 이루어져서 쌍이 되는 괘와 건곤 등 8개 괘와 같이 반대로 해도 동일한 괘를 구분하여 36궁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소자(邵子)의 시를 인용하여 황윤석은 서로 대칭을 이루는 팔괘(八卦)의 상들로부터 이루어지는 64괘의 변화가 지니는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천지가 바른 자리를 잡으면서 「비괘」(否卦)와 「태괘」(泰卦)는 성질이 상반되고, 산택(山澤)이 기운을 통하면서 「함괘」(咸卦)와 「손괘」(損卦)가 뜻을 드러낸다. 뇌풍(雷風)이 서로 부딪치면서 「항괘」(恒卦)와 「익괘」(益卦)가 뜻을 일으키고, 수화(水火)가 서로 싫어하면서 「기제괘」와 「미제괘」가 되고, 사상(四象)이 서로 교차하여 16가지 일을 이루고, 팔괘가 서로 갈마들면서 64괘가 된다.”<sup>33</sup> 소옹은 시에서 팔괘가 서로 대립하여 충돌하고 교감하여 통하는 과정을 통하여 64개 가운데 서로 대칭적이거나 대립하는 괘가 생겨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그가 팔괘와 육십사괘 사이의 이수역학적 변화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다.

황윤석은 주자(朱子)의 주장을 인용하여 리(理)와 상(象), 수(數)와 기(氣)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성인이 역을 지을 때는 대체로 우러러 살피고 굽어서 관찰하여 천지 사이에 일음일양의 리(理) 아닌 것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리(理)가 있으면 곧 이 상(象)이 있고, 이 상이 있으면 곧 이 수

而成十八卦也.”

32 『理數新編』卷15, 「易學啟蒙」, p. 1303, “除中孚小過二卦外, 三十二卦, 本十六卦相反而成, 乃十八卦也. 按上下經十八卦, 合成三十六宮, 乃六六之數也. 蓋小成之卦八, 而除乾坤坎離四卦外, 四卦本二卦相反而成, 乃六卦也. 故以全數之八而八之, 則六十四也. 以本數之六而六之, 則三十六也.”

33 『理數新編』卷15, 「易學啟蒙」, p. 1313, “邵子詩云, 天地定位, 否泰反類, 山澤通氣, 咸損見義. 雷風相薄, 恒益起意, 水火相射, 既濟未濟, 四象相交, 成十六事. 八卦相盪爲六十四.”



(數)가 여기에 있으니, 「하도낙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대개 수(數)는 기의 나뉘어진 분절 경계처이다. 양을 얻으면 반드시 기수가 되고, 음을 얻으면 반드시 우수가 된다. 모든 사물이 다 그렇지만 「하도낙서」에서 더욱 정교하게 두드러지게 드러났다.<sup>34</sup> 곧 음양의 기가 각각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변화되는 규율이 리(理)이고, 이런 리가 있을 때 여기에 근거하여 상과 수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황윤석은 이수(理數)의 구조는 바로 기의 변화를 규율하는 리와 여기에 근거하는 상과 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것이다.

나아가 그는 체계통의 견해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리상수사(理象數辭)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았다.

체계통이 말하였다. “역을 공부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이상수사 네 가지가 서로 떨어진 적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대개 이러한 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象)이 있고, 이러한 상이 있어서 이러한 수가 있다. 리와 상수가 있으면 사(辭)가 없을 수 없다.”<sup>35</sup>

황윤석은 여기에서 체계통이 제시한 이상수사(理象數辭)의 네 가지가 분리되지 않는 것이라는 견해를 확인하였다. 요컨대, 이상수사는 필연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 자연 사물의 생성 변화의 법칙과 현상을 순서에 따라 질서 지우는 개념이 된다.<sup>36</sup>

34 『理數新編』卷15, 「易學啟蒙」, p. 1303, “朱子曰, 聖人作易, 蓋是仰觀俯察, 見得天地之間, 無非一陰一陽之理. 有是理, 則有是象, 有是象, 則其數便自在這裏.”

35 『理數新編』卷15, 「易學啟蒙」, p. 1304, “季通云看易者, 須識理象數辭四者, 未嘗相離. 蓋有如是之理, 便有如是之象, 有如是之象, 便有如是之數, 有理與象數, 便不能無辭.”

36 「계사」상-2, 군자는 평소에 그 상을 보고서 그 문장을 음미하고, 움직일 때는 그 변화를 보고서 그 점을 완미한다(君子居則觀其象而玩其辭 動則觀其變而玩其占)고 하였다. 여기에서상과 사는 괘효사에 포함되어 있는 괘효 부호의 상과 괘효사에 내포되어 있는 물상을 뜻하고, 사(辭)는 물상을 포함하는 명제의 의미를 주로 뜻한다. 따라서 상(象)과 사

황윤석은 또한 『주역』 「설괘전」 5장에 대한 세주(細注)에서 서기(徐幾)가 제시한 팔괘와 오행의 상관관계를 인용하여 팔괘의 작용과 오행의 생성이 유기적 연속성을 가지고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후천(後天) 팔괘 중의 진손(震巽)은 목(木)에 속하고, 목은 화를 낳으므로 리(離)가 다음에 온다. 리화(離火)는 토(土)를 낳으므로 곤(坤)이 다음에 온다. 곤토(坤土)는 금(金)을 낳으므로 건태(乾兌)가 다음에 온다. 금(金)은 수(水)를 낳으므로 감(坎)이 그 다음에 온다. 수(水)는 토(土)가 아니면 또한 목(木)을 낳을 수 없으므로 간(艮)이 그 다음에 온다. 수(水) 위에 다시 목(木)을 낳고, 목(木)은 다시 화(火)를 낳는다. 팔괘의 작용과 오행의 생성은 무궁하게 순환한다<sup>37</sup>라 하였다”고 하였다. 이 단락에서 팔괘의 작용에 따른 성질에 오행의 생성 순환이 가능한 근거가 내재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오행의 생성 순환의 순서를 팔괘의 작용에 배치하고 있다. 이처럼 오행과 팔괘를 연결성을 가지고 이해하는 시각은 자연의 생성변화의 형식 체계로서 오행(五行)과 팔괘(八卦)를 일관성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으로 이수(理數)의 다양한 의미를 해명하고자 하는 취지를 지닌다.

이어 황윤석은 「괘극과설총도」(卦劫過揲總圖) 아래에서는 ‘잡물찬덕’(雜物撰德)에 관한 질문에 대한 주자의 대답을 인용하여 호체설을 제시하고 있다.

질문하기를 “사물을 섞고 덕을 가리는 것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

(辭)는 내재적 본질적 의미연관성을 가진다. 또 정이(程頤)는 리가 있고 나서 상이 있고, 상이 있고 나서 수가 있다(有理而后有象, 有象而后有數)고 하여 리와 상, 수 사이의 논리적 시간적 선후관계를 해명하였다. 이처럼 리와 상, 수, 사 사이에는 내재적인 연속성을 지닌다.

37 『理數新編』卷15, 「易學啟蒙」, p. 1313, “徐氏曰, 後天八卦, 震巽屬木, 木生火故離次之. 離火生土, 故坤次之. 坤土生金, 故乾兌次之. 金生水故, 坎次之. 水非土亦不能以生木, 故艮次之. 水上又生木, 木又生火, 八卦之用, 五行之生, 循環無窮.”(『周易傳義大全』, 「說卦傳」 5章, 細注)

그 중효가 아니면 갖추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말하기를 “이곳에 대해서는 선유들이 호체(互體)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준괘(屯卦) 진(震)이 아래이고 감(坎)이 위에 있다. 가운데 네 효를 보면 2에서 4까지는 곤(坤)이 되고, 3에서 5까지는 간(艮)이 된다. 그 중효가 아니면 갖추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호체설은 한유들이 많이 사용하였다. 『좌전』 중에는 점을 쳐서 관괘(觀卦)를 얻은 곳에서 말한 것 또한 이야기한 것이 분명하니, 이성을 폐기할 수 없음을 볼 수 있다”라 하였다.<sup>38</sup>

「계사전」의 ‘잡물찬덕’(雜物撰德) 장은 호체설을 설명하는 것으로 유명한 구절이다. 이 구절에 대하여 황윤석은 주희의 견해를 인용하여 호체설을 버릴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호체설은 한유들이 많이 주장하여 괘효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괘효사(卦爻辭)의 정합적 의미를 괘효의 내면적인 변화에 근거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수역학의 핵심적인 이론이다. 이처럼 황윤석이 호체설을 강조한 부분도 이수역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드러내고 있다.

황윤석은 또한 천지대연지수를 50으로 인식하는 「계사전」의 학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이해하였으나, 주자의 견해를 인용하여, 역수(易數)를 모두 60으로 보아 36 대 24, 32 대 28 등으로 나뉘는 것이 모두 60이라고 하였다. 이것에 대하여 그는 십간(十干) 십이지(十二支), 또한 60으로 귀결되고, 황종률 또한 오성십이율(五聲十二律)로, 쌓으면 60이 된다고 보았다. 이것으로 볼 때, 천지지수가 모두 60을 표준으로 한다고 하였다.<sup>39</sup> 황윤석이 이러

38 『理數新編』卷15, 「易學啟蒙」, p. 1321, “問雜物撰德, 辨是與非, 則非其中爻不備. 曰這樣處先儒解此多以為互體. 如屯卦震下坎上, 就中間四爻觀之, 自二至四則為坤, 自三至五則為坎. 故曰非其中爻不備, 互體說漢儒多用之, 左傳中一處說占, 得觀卦處, 亦舉得分明看來, 此說亦不可廢.”

39 『理數新編』卷15, 「易學啟蒙」, p. 1305, “大凡易數, 皆六十. 三十六對二十四, 三十二對二十八, 皆陸十也. 以十甲十二辰, 亦湊到六十也. 鍾律以五聲十二律, 亦積為六十. 以此知天地之數, 皆至六十位節.”

한 견해를 인용한 것은 천지대연지수가 50이라는 것과 별개로 납감법이 적용되는 역법(曆法)과 율리(律呂) 등에 60을 표준으로 하는 이수역학적 원리를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5. 『이수신편』의 이수학과 문화다원론적 지향

이 장에서는 『이수신편』이 내포하고 있는 이수역학에 대하여 문화다원론적 관점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황윤석이 물리적 객관세계의 필연적 법칙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 천인감응론(天人感應論)과 같이 천리(天理)를 인간의 도덕적 근원으로 보는 시각에서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황윤석은 천문학과 역법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학과 도덕학을 연결시키고자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전제에 따라 그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료를 통하여 그 연속적 의미를 해명하고, 아울러 문화다원론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sup>40</sup>

먼저 황윤석은 이수광이 은주시대 정전제(井田制)의 구체적 치수를 고증하여 정전설(井田說)을 복원하여 은주시대 제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는 한백겸(韓百謙)이 고찰한 정전법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수광이 말하였다. “기자의 정전은 평양 남문 밖에 있었는데, 전 가운데

40 황윤석의 이수역학이 지니는 문화다원론적 함의는 동일한 보편성을 지니는 정전법이 지역과 시대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평적 차원에서 적용한다는 점에서 문화다원론적 의미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지리적 풍토나 물산, 서양문물에 대한 실용적 수용 등이 모두 다원론적 특수성과 고유성을 포용하고자 하는 점에서 다원론적 함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의 이러한 문화 지리적 설명은 그의 이수역학에 내포되어 있는 다원적 의미에 대한 사회문화적 적용 사례이며, 이에 대한 설명은 그의 이수역학과 사회문화적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체계성을 지닌다.

우물이 있어서 ‘기자정’(箕子井)이라고 이름하였다. 구암 한백겸은 그 제도를 찾고자 하여 은주시대의 걸음 치수(步數)의 차이, 척촌의 장단을 고찰하여, 땅에 따라서 추산을 하여 그 구획을 구분하니 매구 마다 70무(畝)를 각각 작은 경계로 삼았으며, 가로 세로가 모두 사통팔달로 통하여 모두 64개 구를 커다란 경계로 삼았다. 반듯하고 정당하여 수리의 길이를 연장하고 정양(正陽)의 자리를 머금어서 두 개의 문 사이에 가장 분명하게 하여 정전설(井田說)을 지어서 은주(殷周)의 제도상의 차이를 밝혔다.<sup>41</sup>

황윤석은 은주시대의 정전법이 기자(箕子) 시기에 평양에 전파되면서 당시 지리적 위치에 맞게 수정한 정전법을 한백겸이 고찰한 것에 대하여 은주시대 정전제도와와의 차이를 밝혔고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하나의 정전법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보수(步數)와 규모가 특수하게 수정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문화다원론적 의미를 가진다.

『이수신편』 권6에는 지리(地理)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황윤석은 지리적 풍토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의 제주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 짐승과 조류, 과일, 향, 바다거북, 진주조개 등 제주도의 다양한 물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탐라국은 지금의 제주도인데, 기후가 따뜻하고 백성들의 풍속은 어리석으면서도 검소하다. 짐승 중에는 호랑이 표범이 없고, 곰이나 외로운 새도 없고, 까치나 올빼미도 없다. 과일로는 굴과 홍굴이 있고, 유감과 금굴, 동정굴이 있고 비자도 있다. 또 영릉향과 팔각향, 그리고 바다거북과 진주조개가 산출된다. 제주도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추자도(楸子島), 사서도(斜

41 『理數新編』卷17, 「治道, 田賦」, p. 1484, “芝峯曰, 箕子井田在平壤南門外, 田中有井, 名曰箕子井. 韓久菴百謙, 欲求其制, 乃考殷周步數異同, 尺寸長短, 逐畝折算, 辨其區畫, 則每區七十畝, 各爲小界限, 而縱橫皆八通, 計六十四區, 爲一大界限. 方方正正, 延袤數里, 含球正陽, 兩門之間, 最爲分明, 乃作井田說, 以明殷周田制之不同.”

鼠島), 대소탈도(大小脫島)를 거쳐 애월(涯月)에 이르고 조천관(朝天館)에 여장을 푼다.<sup>42</sup>

유학에서 지리적 특성에 관한 자료는 『서경』(書經) 「우공」(禹貢)편에 가장 두드러지게 제시되어 있다. 이들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물산은 고대 이래 중국으로부터 특산물에 대한 공납(貢納)의 전통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각각의 지역에 대한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그 지역이 지니는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점에서 지리적 특성에 대한 기술에는 문화다원론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황윤석은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이 『지봉유설』(芝峯類說) 「제국부」(諸國部)에서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가 『천주실의』를 지어 기독교 교리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을 『이수신편』 「지리」(地理)에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마테오 리치는 바다를 건너 온지 8년 동안 8만 리의 파도를 넘어 동오(東奧)에 10여 년 살았다. 저술한 『천주실의』 두 권은 머리에 천주가 천지를 제작하고 편안히 기르는 도리를 주재하였음을 논하였다. 다음으로 인간 영혼의 불멸하여 금수와 크게 다름을 논하였고, 다음으로 육도윤희의 오류와 천당지옥과 선악의 과보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성의 본래적인 선함과 천주를 공경스럽게 받드는 뜻을 논하였다. 그 나라는 서역에 있고, 중국으로부터 8만 리나 크게 떨어져 있다. 고래로 중국과 통하지 않았는데, 명대에 이르러 처음으로 공납을 들었다. 그 나라의 사신은 보물에 의지했는데, 보물로 지도를 제작하였고, 마지막에는 서문을 지어 문자를 기록하였다. 바른 뜻이 우리나라 문자와 다름이 없었다. 그 나라 사람 마테오 리치

42 『理數新編』卷6, 「地理」, p. 433, “耽羅國, 今濟州, 風氣暄暖, 民俗痴儉, 獸無虎豹, 熊羆孤禽, 無鵲鳩鷓. 果有柚子柑子, 乳柑金橘. 洞庭橘榘子, 又產零陵八角玳瑁蟻珠之屬, 入州者皆經楸子島斜鼠島大小脫島, 至于涯月, 浦朝天館.”

와 이응성(李應誠)은 또한 모두 『산해여지전도』를 가지고 있었고, 왕기(王沂)의 『삼재도회』 등의 서적은 그 학설을 채택하였다.<sup>43</sup>

천주교 교리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황윤석은 마테오 리치가 『천주실의』를 지어 천주의 창조능력, 영혼불멸설, 천당지옥 선악의 과보, 인성의 선함을 논의한 것을 인용하여 기술하면서 특별히 평가는 하지 않았다. 반면 『산해여지전도』(山海輿地全圖)와 같은 지도를 제작하여 서양의 자연과학적 성과를 전파하는 문화적 과정을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점 또한 그의 이수역학이 자연과학적 실용적 특성을 가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황윤석은 『이수신편』 「적루첩법」(滴漏捷法)에서도 마테오 리치가 가장 기이한 물건인 자명종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지봉유설』 「복용부」(服用部) ‘금보’(金寶)에서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서양 나라에 마테오 리치(利瑪竇, Matteo Ricci, 1552~1610)가 있었는데, 바다를 건너 동오(東奧)에 살면서 기이한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가장 진기한 것으로 자명종이 있었으니, 시간을 알려 소리가 나고 시간이 전혀 어긋나지 않았다. 일본에도 그것이 있어서 시종(時鐘)이라고 불렀다.”<sup>44</sup>라고 하였다. 황윤석은 천주교와 함께 서양 선교사들이 전파한 문물 중에 마테오 리치가 가지고 있던 자명종(自鳴鐘)을 이처럼 기이한 물건으로 보고 특별히 기록하고 있다. 황윤석이 실용적 쓰임새를 가진 서양으로부터 전파된 문물과 그 원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의 이수학이 효용성을 가진 문물의 구성 원

43 『理數新編』卷6, 「地理」, p. 425, “有利瑪竇者, 泛海八年, 越八萬里風濤, 居東奧十餘年, 所著天主實義二卷, 首論天主始制天地, 主宰安養之道. 次論人魂不滅, 大異禽獸. 次論輪回六道之謬, 天堂地獄善惡之報. 末論人性本善而敬奉天主之意. 其國在西域, 最絕遠去中國, 八萬里. 自古不通中國, 至明始再入貢, 其國使臣憑寶. 寶作地圖, 未作序文記之文字. 雅訓與我國之文不異. 其國人利瑪竇李應誠者, 亦俱有山海輿地全圖, 王沂三才圖會等書類, 采用其說.”

44 『理數新編』卷6, 「滴漏捷法」, p. 292, “西國有利瑪竇者, 泛海居東奧, 多挾異寶, 其最奇者, 有自鳴鐘. 按時有聲, 漏刻毫不爽. 日本亦有之名曰, 時鐘.”

리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황윤석은 서경덕의 여러 학설을 인용하여 자신의 이수학을 설명하는 근거 자료로 삼고 있다. 그는 곧 서경덕의 「온천변」(溫泉辨)이라 글을 통하여 음양의 순환 변화에 따른 자연과학적 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소자가 말하기를 “일기(一氣)가 나뉘어져 음양이 되는데, 음양이 반이 되면서 형질이 갖추어진다. 음양이 치우치면서 성정이 나뉘게 되니, 이것을 알면 온천이 따뜻함은 이상할 것이 없다. 천은 음이 없는 적이 없고, 지(地)는 양(陽)이 없는 적이 없다. 수(水)와 화(火)는 서로 그 저장소에 잠겨 있다. 또 천(天)의 양(陽)은 항상 지(地)의 허(虛)에 관통해 있고, 지는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천은 하나로 실하며 땅은 둘로 허하다. 양이 땅속에 쌓여서 기가 한 곳에 폭주하여 쌓여서 뜨거운 압력을 받으면 샘의 수맥은 변화되고, 뜨겁게 퍼져 열을 낸다.”라고 하였다.<sup>45</sup>

여기에서 서경덕은 온천이 생기는 원리를 한쪽으로 치우치는 음양(陰陽)의 변화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천지수화(天地水火)는 양 없는 음이 없고, 음 없는 양도 없어서 음과 양은 서로 연속하여 서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과정에서 음기가 성하기도 하고, 양기가 성하기도 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황윤석은 화담의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음양의 변화로서 수화(水火)의 상관적 변화를 온천에 적용하여 설명함으로써 그 열기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의 이수학은 천지음양(天地陰陽)을 자연과학적 법칙을 실용적 측면에 적용하는 것을 포괄하고 있다.

45 『理數新編』卷6, 「溫泉辨」, p. 794, “邵子曰‘一氣分而爲陰陽, 陰陽半而形質具焉. 陰陽偏而性情分焉.’ 知此則泉之溫無足怪也. 天未始無陰, 地未始無陽. 水火互藏其宅, 且天之陽常貫乎地之虛, 而地不得以不受. 故曰天一而實, 地二而虛. 陽蘊於地中, 氣或輻湊於一處, 積而蒸鬱, 泉脉被化, 蒸薄而熱.”



요컨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황윤석은 그의 이수학의 다원론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고대 중국 은주대의 정전제도의 연원과 그 특수한 적용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 풍토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특수한 지역의 정치적 실용적 의미의 이수학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또한 마테오 리치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서양 문물에 대한 자연과학적 원리와 주제를 반영하고 있는 이수학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그는 전통유학의 천지음양론이 내포하고 있는 이수적 원리를 온천(溫泉)의 생성과정이라는 자연과학적 현상에 적용하여 그 특수하고 실용적인 의미를 고찰하였다.

## 6. 맺음말

본 논문은 조선후기 서양 자연과학을 적극 수용하면서도 전통 성리학의 세계관을 유지했던 이재(頤齋) 황윤석(黃胤錫)의 『이수신편』(理數新編)에 반영된 이수역학의 특징을 문화다원론적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서양 자연과학과 천문역법을 받아들이면서도 성리학적 세계관을 함께 유지했던 그가 전통 유학의 도덕적 실천론과 서양과학의 자연학과 실용학을 융합한 양상을 살펴보았다. 조선후기에 황윤석은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자연학과 도덕학을 담고 있는 『성리대전』을 서양 자연과학의 조선에의 수용에 따른 시대적 요청으로 재편집될 필요가 있었다. 『이수신편』은 이러한 요청에 대응한 학문적 성과였고 그의 학문적 방향을 결정한 저술이었다.

황윤석은 형이상의 본체와 형이하의 작용을 하나의 전체로 연속성을 가지고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이것은 보편적 원리를 특수한 현상세계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찾고자 하는 것으로 현상 세계의 다원적 양상을 포용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그는 오행과 팔괘를 연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자연의 생성변화를 매개로 오행(五

行)과 팔괘(八卦)로부터 이루어지는 이수(理數)의 다양한 의미를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그의 음양오행과 관련한 황윤석의 이수학적 문제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자연법칙을 보다 추상적인 일정한 수리적 또는 이수적 원리에 따라 설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상의 다원성을 보편적 원리의 측면에서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황윤석은 세계 여러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데, 이것은 그 지역이 지니는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리적 특성에 대한 기술에는 문화다원론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황윤석은 실용적 쓰임새를 가진 서양으로부터 전파된 문물과 그 원리를 언급하는데, 이는 그의 이수학이 효용성을 가진 문물의 구성 원리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황윤석의 이수역학은 기본적으로 전통 유학과 성리학의 도덕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자연학적 기초로서 자연세계에 대한 경험 과학적 법칙에 대한 인식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이수학은 도덕적 정치적 이상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경험적이고 실용적인 수단을 탐구하는 의미를 가진다.

요컨대 『이수신편』의 편찬을 통한 황윤석의 학문적 지향은 전통 유학과 성리학의 도덕적 세계관과 근대의 실용학과 자연학을 병행 또는 연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일관된 체계를 구성하고자 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수신편』의 체계는 전통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자연학과 도덕학, 『주역』의 이수역학에 기초하여 서양과학과 문물, 동아시아의 문화 등 특수하고 다양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다는 점에서 문화다원론적 함의를 지닌다.

## 참고문헌

- 황윤석(1975), 『理藪新編』(上·下), 亞細亞文化社.
- 황윤석(1996), 『理藪新編』「周易綱領」, 『韓國經學資料集成: 易經』 20, 성균관대대동문화연구원.
- 황윤석(1994~2003), 『頤齋亂藁』, 脫草本 頤齋亂藁 一~九,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황윤석(2000), 『頤齋續藁』, 『韓國文集叢刊』 246, 民族文化推進會.
- 구만옥(2021), 「『이수신편』(理藪新編)의 편찬과 내용 구성」, 『韓國思想史學』 69, pp. 221-271.
- 구만옥(2017), 「18세기 후반 김석문(金錫文)과 『역학도해』(易學圖解)의 발굴: 황윤석(黃胤錫)의 『이재난고』(頤齋亂藁)를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57, pp. 1-59.
- 구만옥(2015), 「황윤석(黃胤錫)의 ‘천문’(天文) 인식과 『상위지요』(象緯指要)」, 『韓國思想史學』 51, pp. 403-449.
- 구만옥(2009), 「조선후기 천문역산학의 주요 쟁점: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의 『이재난고』(頤齋亂藁)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31(1), pp. 65-102.
- 김문용(2013), 「18세기 주자학적 천인관계론의 향방: 頤齋 黃胤錫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39, pp. 53-83.
- 박명희(2007), 「이재 황윤석(黃胤錫)의 시에 나타난 유기체적(有機體的) 자연관」, 『東方漢文學』 33, pp. 459-488.
- 박순철(2017), 「頤齋 黃胤錫의 《周易》詩 研究」, 『중국학논총』 55, pp. 51-66.
- 이형성(2011), 「頤齋 黃胤錫의 洛學 繼承의 性理說 一攷」, 『한국사상과 문화』 60, 한국사상문화학회, pp. 331-355.
- 이형성(2000), 「이재 黃胤錫의 ‘數’에 기초한 實學思想 一攷」, 『한국사상과 문화』 9.
- 천기철(2008), 「이재 황윤석의 서학 인식과 특징」, 『동양한문학연구』 27.
- 최영성(2016), 「18세기 노론 낙학과(洛學派)의 현실인식과 대응논리: 『성리대전』에 대한 황윤석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50.
- 최영성(2008), 「黃胤錫 實學의 特性과 象數學의 基盤」, 『유교사상문화연구』 32.
- 하성래(1983), 「頤齋 黃胤錫의 西洋 科學思想 受容: 湛軒 洪大容과의 關係를 중심으로」, 『전통문화연구』 1, 명지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 황의동(2008), 「頤齋 黃胤錫의 學風과 性理學」, 『汎韓哲學』 48(1), pp. 1-28.
- 川原秀城(2020), 「황윤석(黃胤錫)과 『이수신편』(理藪新編)」, 『한국실학연구』 40.

## ABSTRACT

A Cultural Pluralistic  
Reading of Mathematical  
Mechanics in Hwang Yun-seok's  
*Yisusinpyeon*

Eom Yeonseok\*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mathematical mechanics reflected in *Yisusinpyeon* by Hwang Yun-seok, Leejae, who actively accepted Western natural scienc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but maintained the worldview of traditional Neo-Confucianism, through cultural pluralism. This point of view is highlighted in the paper. Furthermore, while accepting Western natural science and the astronomical calendar, he maintained the Neo-Confucian worldview together, and examined the aspect of integrating the moral practice theory of traditional Confucianism and the natural sciences and practical studies of Western world. Hwang Yun-seok's *Yisusinpyeon* revised and reedited *Seongnidaeyeon*, which contained the metaphysical physics and morality of Neo-Confucianism, was the result of the demand of the times following the acceptance of Western natural sciences in Joseon.

Hwang Yun-seok understood the body of the metamorphic and the action of the sub-metamorphic as a whole with continuity and an organic connection. This is meant to embrace the plural aspects of the phenomenal

---

\* Professor, Taedong Center for Eastern Classics, Hallym University

world by seeking universal principles in the diverse changes of the particular phenomenal world. He regards the Five Elements and the Eight Trigrams as having continuity, which he tried to explain the various meanings of the number of degrees formed from the Five Elements and the Eight Trigrams through the medium of the change in nature. Hwang Yun-seok embraced cultural diversity by emphasizing understanding of the geographic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regions of the world. The description of thes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has implications for cultural pluralism.

His Yisuyeokhak is basically oriented toward the moral goal of traditional Confucianism and Neo-Confucianism. He valued the recognition of the empirical scientific laws of the natural world as a natural basis for his moral goals. Therefore, his mathematics has the meaning of exploring empirical and practical means to achieve a moral and political ideal society.

In short, the significance of Hwang Yun-seok's academic orientation through the compilation of *Yisusinpyeon* can be found in that he tried to construct a consistent system by having the moral worldview of traditional Confucianism and Neo-Confucianism, modern practicality and natural science in parallel or continuity. The system of *Yisusinpyeon* has the purpose of actively accepting special and diverse cultures such as Western science, cultural relics, and East Asian culture based on the metaphysical natural sciences and morals of traditional Neo-Confucianism and the Yisuyeokhak of the *Book of Changes*, which has cultural pluralistic implications.

**Keywords** Hwang Yunseok, *Yisusinpyeon*, *Seongri Daejeon*, Yisuyeokhak, Science, Cultural Pluralism

